

저출산(低出産) - 새 시대의 사회문제



朴商台

한국인구학회 회장 / 서강대 교수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협력하여 실시한 가족계획사업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산율의 억제에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힌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출산조절·산아제한이란 표현의 사용은 거의 금기로 여겼으며 가족계획이란 완곡한 표현조차도 사용하기 조심스러웠다. 1960년 우리 나라 가입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수준인 6.0명이었다. 이율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급격히 저하하여 통계청에서 추계, 발표한 자료를 인용하면, 1970년 4.5명, 1980년 2.8명, 1990년 1.6명, 1999년 1.4명으로 특히 지난 10년 이상 출산수준이 대체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평균 수준보다도 낮기에 우리를 놀라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저출산율, 특히 재생산 수준 이하의 저출산율은 높은 출산율 못지 않게 문제를 야기한다. 먼저 총인구수의 감소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어느 정도 지연은 될 수 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필연적으로 다가올 현상이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는 드물 것이다. 다음, 노동력 공급이나 사회발전 등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영향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인구 내적인 면만을 보

더라도 인구 구조상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출산율이 4분의 1로 저하될 경우 60세 이상 노년인구의 비율은 4배 이상 증가된다. 이와 같은 노령화 현상은 영유아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경우 평균수명이 아무리 증가해도 별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년인구뿐만 아니라 영·유·소년의 사망률 저하를 동반하기에 출산율이 저하할 경우 노년인구 비율은 출산율이 저하한 만큼 계속 반비례해서 증가한다. 따라서 그 동안 노령화는 오로지 출산율의 저하가 가져온 현상이지 평균수명의 연장은 무관한 것이었다.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조선송배 사상이 강한 나라였다. 고대 유학과 중세 주자학의 영향을 받아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시하고, 그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나오는 불효의 조건 세 가지(늙은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것, 무조건 부모의 의지를 좇아 부모로 하여금 옳지 못한 데 빠지게 하는 것, 혼인을 하지 않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를 신봉하고, 특히 맹자의 영향을 받아 그 들 조건 중에서도 후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다. 오랜 동안 우리 민족 구성원 대부분의 마음속에 자리잡았던 신념이 단시일내에 사라질 수 없었기에 대를 잇는 효를 위해 남아선호 사상이 계속되었으며, 이는 지난 여러 해 동안 출생한 신생아들의 성비불균형 현상으로 나타나고, 지역적으로 약간의 차이만 있었을 뿐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세계화·정보화 된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만혼, 독신, 이혼, 별거 등 혼인력을 낮추는 혼인양식이 제도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다자녀(多子女) 기피현상과 더불어 소자녀에 대한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출산율이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을 위한 제도적 변화는 찾아보기 힘든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에 드는 비용이나 노력은 과거

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해 들었던 비용이나 노력보다 더 크게 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의식구조나 가치관을 과거와 같은 유형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구조 등 다른 모든 조건이 변화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세계

화·정보화 된 사회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의 경우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는 국민 각자 적당할 수의 자녀를 갖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기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인센티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기에 어린이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가치관을 공유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어린이는 친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공동으로 돌봐 주었다. 오늘날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어린이를 마을 전체가 돌보는 제도가 정착하여 이혼율도 저하하고 출산율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